

중국 이동전화시장 현황 및 전망

공영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시장은 점차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터넷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중국의 정보통신시장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3회에 걸쳐 중국의 정보통신시장을 이동전화시장, 인터넷시장, 정보통신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이동전화시장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중국 이동전화시장 개요

통신산업은 방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정부가 통신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정부의 시장기능 활성화 조치가 맞물려 규제와 통신사업을 분리하고 통신운영사업부문을 독립시켜 공사를 출범시킨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격되는 통신시장 자유화의 과정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통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 이동전화서비스는 1987년 광둥성에서 우전부(현 정보산업부)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중국의 이동전화서비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며 China Telecom은 '94년부터 GSM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해 왔다.

1995년 중국 정부는 규제와 통신망 운영사업을 함께 영위해 오던 우전부(현 정보산업부)에서 통신사업부문을 독립시켜 China Telecom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4월에는 China Telecom의 이동전화부문을 분리하여 China Mobile을 성립시켰다.

한편, 1994년 7월 중국 제2의 통신사업자인 China Unicom의 출범으로 인해 중국의 이동전화시장

은 China Telecom(현재는 China Mobile)의 독점구도에서 복점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7월에는 우전부와 인민해방군이 합작으로 장성망 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장성망 공사는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북경, 서안, 상해, 광주 등지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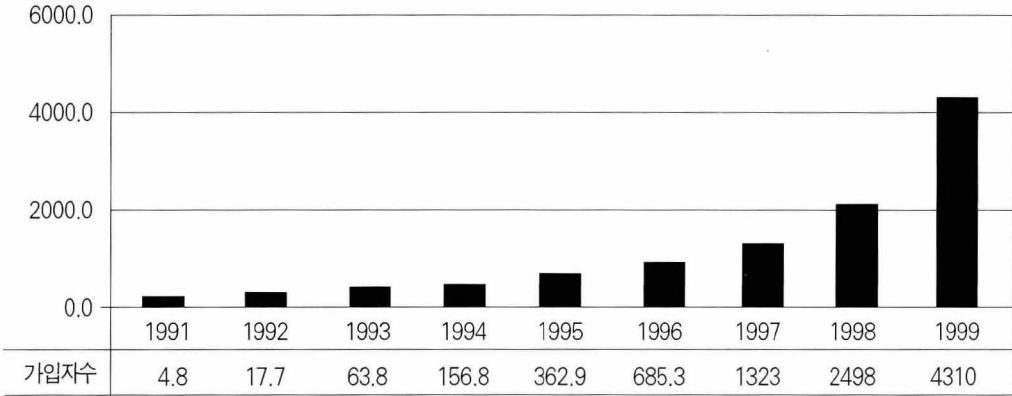
중국의 이동전화시장은 매년 두 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는 전년에 비해 72.5%가 증가한 4,310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정보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약 6,3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7,500만명, 2001년 상반기에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로는 중국인들의 소득증가, 단말기 가격 및 서비스이용요금의 인하, 낮은 유선전화 보급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이동전화가입자수 증가 추이(단위: 만명)



자료: 정보산업부 홈페이지(<http://mii.gov.cn>)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지역별 이동전화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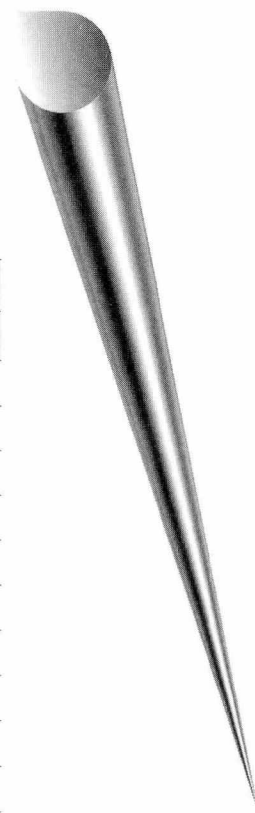
중국 이동전화시장의 상위 10개 지역 시장규모를 1999년 가입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둥지역이 673만명으로 가장 많은 이동전화가입자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1999년 총 이동전화가입자수 4,310만명의 15.6%에 해당한다.

그 뒤를 이어 절강(342만명), 강소(290만명), 복건(279만명), 산둥(252만명), 요녕(252만명), 상해(203만명), 북경(187만명), 하남(182만명), 사천(170만명) 등 순서로 이동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가 전년에 비해 5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절강은 전년 대비 무려 112.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강소(95.9%), 요녕(90.9%), 복건(89.8%), 산둥(72.6%), 북경(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동전화 보급율은 북경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해(13.6%), 광둥(9.3%), 복



<표1> 중국 이동전화시장 상위 10개 지역 시장규모

(단위 : 만명, %)

지역	이동전화 가입자수			지역 인구대비 보급률	
	1998년	1999년	전년대비증가율	1998년	1999년
광둥(Guangdong)	406(1)	673(1)	65.8	5.2(3)	9.3(3)
절강(Zhejiang)	161(2)	342(2)	112.4	3.3(6)	7.5(5)
강소(Jiangsu)	148(3)	290(3)	95.9	1.9(11)	4.0(10)
복건(Fujian)	147(4)	279(4)	89.8	4.3(5)	8.3(4)
산둥(Shandong)	146(5)	252(5)	72.6	1.5(12)	2.8(12)
요녕(Liaoning)	132(6)	252(6)	90.9	3.1(7)	5.9(7)
상해(Shanghai)	127(7)	203(7)	59.8	7.5(1)	13.6(2)
북경(Beijing)	110(10)	187(8)	70.0	7.4(2)	14.7(1)
하남(Henan)	119(8)	182(9)	52.9	1.3(16)	1.9(21)
사천(Sichuan)	107(11)	170(10)	58.9	2.8(8)	4.3(8)

주1) 괄호안의 수치는 순위를 의미함

주2) 이동전화보급률 순위 중 6위는 천진(보급률 7.1%), 9위는 길림(보급률 4.0%)임

자료: BDA China online <http://www.bdaco.com>의 자료를 재편집

건(8.3%), 절강(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중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이 3.4%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의 보급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상위 10개 지역은 99년말 현재 중국 전체 이용자의 65.4%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

가. China Mobile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이하 China Mobile)는 지난 4월 중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중국전신(China Telecom)으로부터 독립한 이동통신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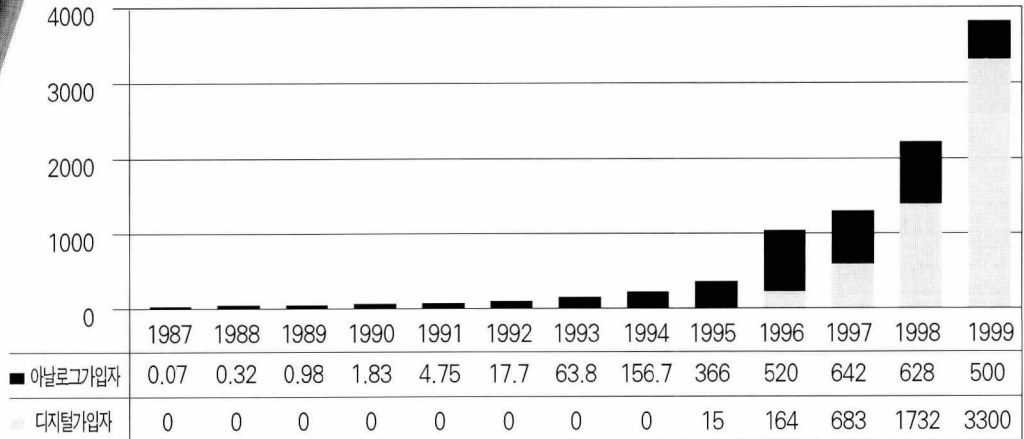
China Mobile는 25개성에 자회사를 가진 일종의 지주회사이다.

China Mobile의 주요 사업은 이동전화, 데이터통신, 인터넷전화 등이다.

이동전화망은 중국전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95%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국제로밍과 관련하여 56개국가 95개 GSM망사업자와 로밍계약을 맺고 있다. GSM가입자 기준으로는 China Mobile이 세계 최대의 통신서비스사업자이다. 1999년말 현재 China Mobile의 총가입자수는 전년에 비해 61%가 증가한 3,800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1994년부터 개통된 GSM 디지털서비스는 매년 높은 증가율로 성장해왔다. 1997년을 기점으로

[그림2] China Mobile의 가입자 구성 추이



자료: China Mobile 홈페이지. <http://www.chinamobile.com>

로 디지털 가입자수가 아날로그가입자수를 추월했으며 China Mobile은 이후 아날로그가입자를 디지털가입자로 전환해오고 있다.

한편, 2000년 6월 10일 China Mobile은 올해 신규가입자 1,000만명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China Mobile의 총가입자수는 4,800만명으로 늘어났다.

나. China Unicom

China Telecom에 이어 중국 제2의 통신사업자인 China Unicom은 전자산업부(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 :1998년 초 중국 정부는 전자산업부와 우전부를 통합하여 정보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로 개편하였다)와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 철도부(Ministry of Railway) 등에 의해서 1994년 7월 19일 설립되었다.

1998년까지 China Unicom은 China Telecom의 견제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China Telecom은 China Unicom과의 상호접속을 지연시키고 접속료를 높게 책정했으며 단말기가격을 보조해 주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China Unicom의 성장을 견제했다. 그 결과 1998년 China Unicom은 이동전화서비스와 무선호출서비스를 포함한 총 매출액은 3억 7,500만 달러,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은 5.6%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정보산업부가 통신서비스시장

<표2> China Unicom의 이동전화 가입자수 증가 추이

(단위: 명)

시스템	개시일	1998	1999	2000. 6
GSM 900	1995	2,000,000	5,000,000	10,000,000
CDMA	1998	1,000	N/A	N/A

자료: China Unicom 홈페이지(<http://www.chinaunicom.com>)

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경쟁에 대한 정책기조를 강화하고 이동전화시장의 급성장이 함께 맞물리면서 1999년에는 무려 전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1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이 12%로 높아졌다.

2000년 6월 5일 현재 China Unicom의 가입자수는 1,011만명을 기록하여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1999년의 누적 가입자수가 500만명이었는데 지난 6개월만에 다시 50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것은 China Unicom이 최근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China Unicom은 올해까지 총가입자수가 1,500만명~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

가. 단말기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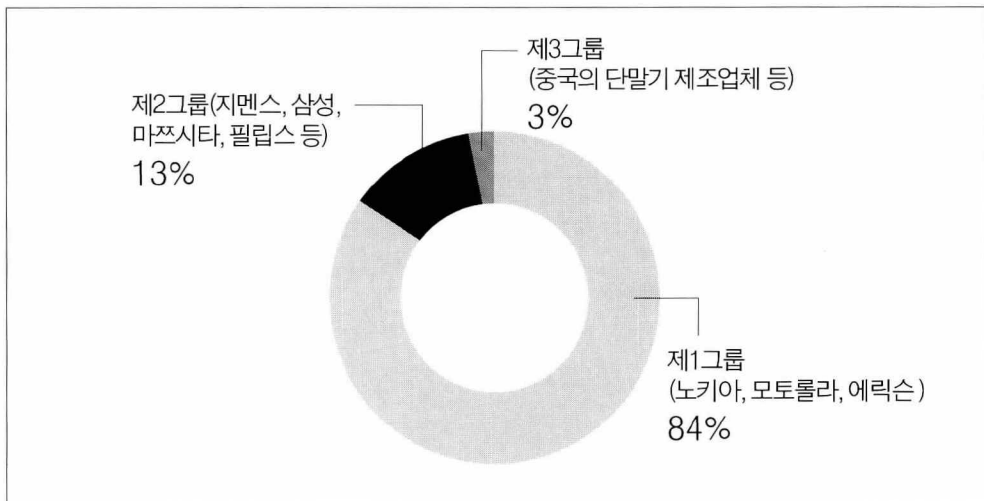
중국의 이동전화단말기시장은 외국의 선발업체인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등 3대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4%에 이른다.

제2그룹에는 삼성, 지멘스, 마쯔시타, 필립스, NEC, 쏘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약 1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1사분기에 삼성과 지멘스의 시장점유율이 마쯔시타와 필립스에 뒤처졌으나, 2사분기부터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마쯔시타와 필립스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그룹은 나머지 약 3%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룹에 중국의 단말기 제조업체가 속해

[그림3] 단말기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1999 手機闊步走向平民」, 瑞盟管理顧問公司, 2000. 5.

있으며 커지엔(科健)과 시아후아(厦華)가 대표적인 중국 단말기 제조업체이다.

나. 상위 10개 단말기모델의 시장점유율

1999년 한해동안 중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판매된 상위 10개 단말기모델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노키아의 N5110모델이 21.0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고 이밖에 N6150(7.37%), N3210(3.71%), N6110C(3.45%) 등도 각각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2위, 7위, 8위를 차지하여 중국의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을 주도했다.

그 뒤를 이어 모토롤라의cd928+(6.66%), cd928(4.87%), 338모델(3.26%)이 각각 3위, 4위, 9위를 차지했으며 에릭슨의 모델은 GF788C(4.06%), GF768C(3.71%)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하였다.

국내기업인 삼성전자의 SGH-600모델은 시장점유율 3.10%를 기록하여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SGH600모델은 3사분기에 4.2%, 4사분기에는 4.4%의 시장점유율을 보임으로써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단일 모델로는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성과는 선발 경쟁업체와의 진입시기 격차를 고려해 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표3> 상위 10개 단말기모델별 시장점유율

(단위 : %)

순위	1999년 전체		1999년 4사분기	
	모델명	시장점유율	모델명	시장점유율
1	N5110(노키아)	21.04	N5110(노키아)	19.8
2	N6150(노키아)	7.37	N3210(노키아)	9.9
3	cd928+(모토롤라)	6.66	cd928+(모토롤라)	8.2
4	cd928(모토롤라)	4.87	N6150(노키아)	6.7
5	GF788C(에릭슨)	4.06	L2000(모토롤라)	5.4
6	GF768C(에릭슨)	3.71	T18SC(에)	4.9
7	N3210(노키아)	3.71	SGH-600(삼성)	4.4
8	N6110C(노키아)	3.45	C2588(지멘스)	3.7
9	338(모토롤라)	3.26	GF768C(에릭슨)	3.5
10	SGH-600(삼성)	3.10	V998(모토롤라)	2.9

자료: 「1999 手機開步走向平民」, 瑞盟管理顧問公司, 2000. 5.